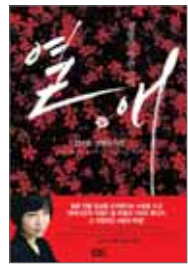


## 조선 독립운동가 박열과 아내의 사랑

2009년 발표 원고 다듬어 재출간



열애  
김별야 지음

1923년 9월, 일본의 관동대지진 직후, 곳곳에서 조선인들이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다. 학살의 명분을 날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간계로 체포된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죽을 앞에서도 끝까지 당당했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이야기는 그로부터 시작된다.

지난 2005년 '미실'로 세계문학상을 수상하며 문학과 대중성을 두루 인정받은 김별야 작가의 장편 '열애'가 나왔다. 작가는 2009년 발표된 원고를 재구성하고 부분적으로 표현을 다듬어 이번에 재출간했다.

소설은 '가미가제 독고다이'와 '백범'을 잇는 작가의 근대 3부작 중 한 작품이다. 소설은 '조선인 독립운동가와 그의 일본인 아내'로 정형화돼 근대사의 변방에 밀려있던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뜨거운 삶과 사랑을 그려낸다.

저자는 두 사람의 만남은 필연적이었다고 본다. 식민지 현실에서 태어난 조선인 독립운동가 박열과 어린 시절부터 부모, 친척, 이웃들의 모진 학대에 시달린 일본

어린 가네코 후미코는 같은 운명을 지녔다는 것이다.

박열은 교육자의 꿈을 안고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에 진학했으나 자퇴를 한다. 조선어 사용을 금하고 일본의 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조선의 시조로 가르치려는 선생에 반발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현장에 위장 취업해 부당한 실대를 고발한다. 또한 불령사, 흑우회 등 단체를 조직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가네코 후미코는 박열의 시 '나는 개새끼로소이다'를 읽고 전율한다. 두 사람이 다다미 6장짜리 단칸방에서나마 행복했던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들은 일본 천왕 암살을 시도했다는 '대역사건'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다. 그러나 박열은 일본 재판정에서도 조선 선비의 예복 차림을 하고 조선말을 쓰는 등 유례없는 행보를 이어나간다.

작가는 그들의 사랑이 비록 비극으로 끝나지만 두 사람의 자유의지는 결코 꺾이지 못했다고 본다. "그들은 젊고 치열했다. 아니키즘의 상징적인 검정처럼 세상의 불순한 빛을 모두 흡수해 청정한 새 빛으로 부활하고자 했다. 불가능한 꿈을 꾸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실수까지도 끝내 책임졌다. 그토록 아름답고 순정한 사랑의 빛에 어찌 홀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해냄·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정원·건축은 단순 재료 아닌 입자와 공간의 미학



의성어 의태어 건축  
구마켄조 지음

구마 켄조는 안도 다다오와 이토 도요를 잇는 일본의 전후 4세대 건축가 중의 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그는 낮고 느린 건축을 말하는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그가 그만의 건축언어로 작업한 작품들이 담긴 '의성어 의태어 건축'을 펴냈다. 의성어나 의태어는 기존의 형태 언어처럼 명백하게 정의되지 않은 모호한 언어다.

저자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은 명료한 언어로 이루어진 기성의 건축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또한 확립적이고 이성적인

언어에 갇힌 건축을 넘어 우리 삶에 건축을 돌려주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책에는 복슬복슬, 찹찹찹찹, 송송송송, 팔랑팔랑 등 열한 개의 의성어와 의태어를 주제로 총 서른두 개의 건축 프로젝트가 수록돼 있다. 일본뿐 아니라 프랑스, 대만, 중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에 있는 건축물이 있으며 뮤지엄, 공방, 문화시설, 주택, 카페, 설치 작품, 시정, 학교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 프로젝트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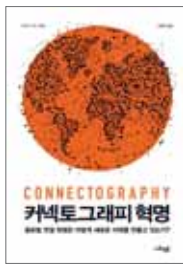
저자는 입자로 세계를 인식한다. 정원이 나 건축은 입자로 만들어져 있다는 데서 완전히 동등한데, 저자가 입자로 환경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의성어와 의태어다. 책에는 익숙한 철, 유리, 콘크리트 재료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대신에 물체와 공간을 입자로 인식하고 이 입자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 고민한 재료들이 등장한다.

〈안그라픽스·2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커넥토그래피 혁명

파라그 카나 지음



"지리적 환경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지리적 환경이 인간 개개인뿐 아니라 국가의 흥망, 인류 문명과 역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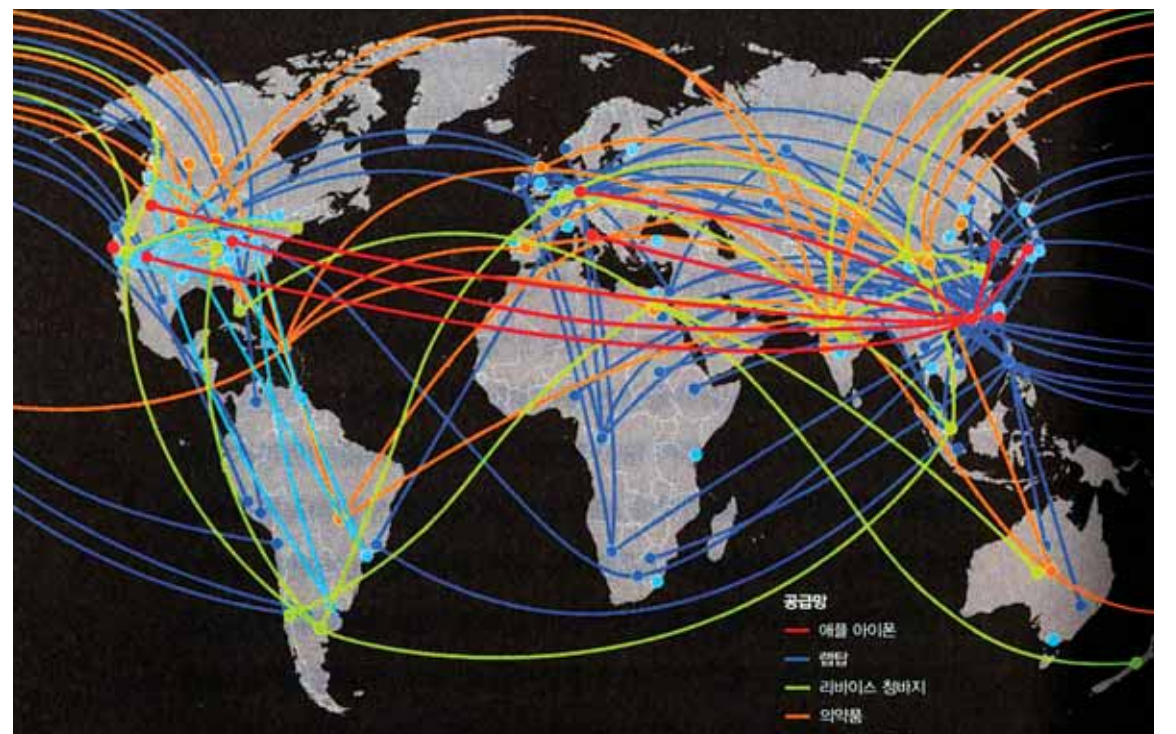
그러나, 이 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이가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이자 세계전략 분야 권위자인 파라그 카나는 지리적 환경보다 연결망을 주시한다. 그는 '와이어드' 선정 '2008 가장 명석한 인물' 1위, 세계경제포럼이 뽑은 '세계 젊은 지도자'에 선정된 영향력 있는 인사다.

파라그 카나가 이번에 펴낸 '커넥토그래피 혁명'은 연결성에 초점을 맞춘다. 인류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던 지리적 제약을 뛰어넘는 변화가 진행 중에 있음을 주목한다. 지금까지 지리적 조건을 기반으로 구성돼온 군사·외교·국제 관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책 제목 '커넥토그래피'는 연결이라는 뜻을 지닌 '커넥트'(Connect)와 지도를 의미하는 '지오그래피'(Geography)'의 합성어다. 저자는 인류 문명을 관통하는 '지도'를 매개 삼아 논지를 펼친다.

무엇보다 저자는 과거 영토 정복, 식민지 확장의 제국주의 방식으로는 21세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21세기는 시장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부각되는 시대다. 이전 세기의 패권이 해상의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제해권(制海權)에 좌우됐다면 이제는 공급망이 대체할 거라는 얘기다.

파라그 카나는 새로운 시대를 '공급망 세계'로 부른다. 이는 인류가 지리적 한계를 초월해 인위적으로 구축



공급망은 전자제품에서 섬유,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더욱 까다로워지는 소비자 등 시장의 압박에 따라 더 분산되고 있다.

한 연결 혁명의 결과다. 데이터와 사례를 토대로 '연결 혁명'이 어떻게 인류의 미래와 운명을 바꿀지 예측한다.

언급했다시피 논의의 중심에는 지도가 있다. 과거의 지리적 위치를 표시하는 그림이 아닌 점과 선으로 연결된 새로운 세계다. '만'이라는 시대는 사라지고 '도시'라는 점과 '공급망'이라는 선으로 연결된 시대인 것이다.

단순히 물류와 공급의 중요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역사적, 공간적 사유를 근간으로 국제관계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위 전략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포위전략 자체가 연결성과 공급망의 중요성을 간과한 과거 패러다임이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인도양 주변에 대한 자원과 투자를 지렛대로 한 중국의 세계전략이 미국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런 견해는 좌우라는 정치이념과 경제적 이해관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과거 지정학이 맡았던 역할을 공급망이 대체한 21세기는 공간적 사유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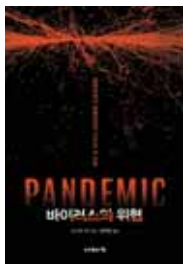
이 같은 견해는 한국의 미래전략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 북핵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 트럼프의 등장, 브렉시트 등 일련의 흐름은 과거 회귀라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지만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한다. 통합과 연결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다. 그 근거는 간단하다. 연결되기는 쉽지만 한번 연결된 후에는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적잖은 고통이 뒤따른다. 분쟁과 전쟁은 공멸로 치닫지만 연결은 수혜로 전이된다.

"연결은 세계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집단적 복원력을 성취하는 중요한 방법을 제공하기도 한다."

〈사회평론·2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인류에 치명상 초래할 전염병은 어떤 병원체일까



팬데믹  
소니아 샤 지음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팬데믹'이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으로 분류했다.

과학자들은 병원체가 가까운 미래에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

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어떤 병원체이며 어떤 방식일까?

과학 전문기자이자 작가인 소니아 샤가 펴낸 '팬데믹'은 다음에 등장할 전 세계적 전염병은 어떤 모습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색한다.

지난 50년 동안, 300종 이상의 감염병이 예전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곳에서 출현하거나 재출현했다. 전염병학자의 90%는 그 중 하나는 다음 두 세대 안에 치명적인 전염병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나눔의 집·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진영논리로부터 벗어나 정의로운 저널리즘 구현



손석희 저널리즘  
정철운 지음

'시사저널'이 선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에 12년 연속 1위로 선정된 언론인이 있다. 그를 영입한 방송사는 뉴스 신뢰도, 뉴스 선호도, 동시간대 메인뉴스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바로 언론인 손석희에 관한 이야기다. 미디어비

평 전문지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가 펴낸 '손석희 저널리즘'은 2017년 촛불 시민혁명 앞에서 빛나는 언론인 손석희의 저널리즘을 고찰한 책을 펴냈다.

저자는 손석희의 '세월호 어젠다 키퍼' 역할에 주목했다. JTBC는 2001년 개메인뉴스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뤘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에서 'JTBC뉴스룸'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신뢰와 지지를 얻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보인 손석희의 진실 보도를 향한 의지 때문이었다고 분석한다.

〈메디치·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